

27학년도 6평 생활과 윤리 Zol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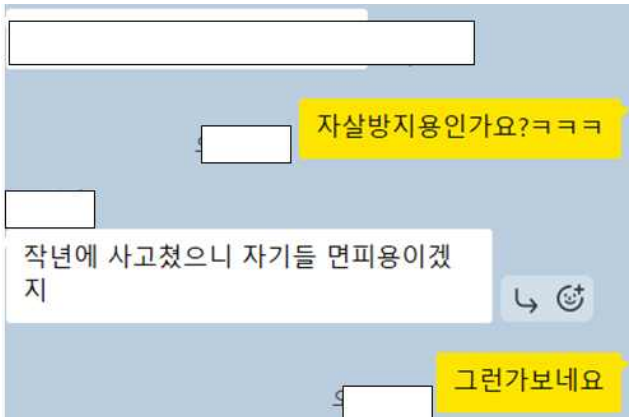
주의: Zola의 자료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차례>
I. 총평 및 전체 경향
II. 문항별 간단 정리
III. 기타 참고 자료

I. 총평 및 전체 경향

1. 작수 쉬운 버전

- (1) 6평 치고는 쉽게 나옴.
- (2) 6평 분석 직후 다른 쌤과 나눈 특 일부



(3) Zola 인상 깊었던 점: 굳이 별 의미없는 내용을 1번 더 생각하게 강요하는 선지들. 선지를 좀 꼬았네요. 쉽게 표현하면 쉬운 내용인데 낯선 선지에 약한 분들은 좋은 연습이 되었을 듯.

(4) 올해 '도' Zola 강의는 별 탈 없겠군이라는 느낌

☞ Zola 현강+인강 2달 1등급 받은 고3 노베가 있어서 그 친구 세부적인 공부 커리 및 학습법을 유튜브에서 소개할까 함.

(5)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배점(쉬운 것이 3점)이 눈에 보임. 3점 문제인데 정답률이 이러면 이게 3점이 맞아????

번호	2	4	7	10	15
정답률(%)	87	84	93	94	79

=>15점 정도는 그냥 건졌네요

(6) 만점도 좋지만 Zola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상태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이번 6모에서 제가 배우지 않은 부분은 틀리고, 배운 부분은 모두 맞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의 강의력과, 늘 강조하셨던 백지복습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생원 1컷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	45	47	47
15학년도	43	47	45(*1)
16학년도	47	41(*2)	50(*3)♥
17학년도	44(*4)	43(*4)	47(*5)
18학년도	45	47	50(*6)♥
19학년도	45	50	50
20학년도	47	48	48
21학년도	47	48	50★
22학년도	45	50	48★★
23학년도	47	47	45
24학년도	43	44	50
25학년도	45	47	41★★★
26학년도	44	44	44
27학년도	48	??	??

☞ Zola 일단 6명 중에서도 쉬울 것으로 예상됨. 단, 그것이 올 수능을 예측해 주지는 못함.

2. 전체적인 특징

특징	해당 번호(정답률* 70% 미만 문제만)	
	비킬러 주제 · 사상가	킬러 주제 · 사상가
(1) 적당한 기출 · 지식	5(56%)	9(48%), 11(69%), 17(62%), 18(45%), 19(47%)
(2) 적당한 독해 · 추론	5(56%), 8(64%)	18(45%), 19(47%)
(3) 적당한 바나나	12(74%..답답해서 적어봤음)	9(48%), 14(42%), 19(47%)
그리고 (4) 적당한 통수(????)	5, 8, 12(50~70%대 초반)	

☞ 자세한 설명은 문항별 해설 참고

☞ 문항 특성상 중복 가능

☞ 적당한 통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님들이 맞은 것임. 그런데 저게 수능에서는 보통 잘 없음. 그러면 전체 등급컷이 상승함.

* 정답률: 메가스터디 공개 자료 참고. 필요시 ebsi 자료 참고

3. 킬러 특징(배점 감소, 난도 하락)

킬러주제	분배정의	교정정의	사회계약론	시민불복종	환경윤리	평화론	해외원조	총합 평균	
25 수능	점수	3	3	3	2	3	2	3	19
	정답률	38	36	54	25	49	50	28	40.00
26 수능	점수	2	3	3	3	3	2	3	19
	정답률	38	53	29	36	62	67	52	48.14
27-6	점수	2	3	3	2	3	2	3	18
	정답률	78	48	47	69	42	45	47	53.71

☞ Zola 작수와 비교하자면 분배정의(롤스)와 시민 불복종 중 1개 이상을 ‘더’ 맞추었다고 보면 됨.

4. 문항 분석들과 6평

분석 틀

생운 문제 유형	주제 또는 문항 형식
독해 주제	[주제] 삶과 죽음의 윤리(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 윤리/사랑과 성 윤리/청렴(직업 윤리)/정보 사회와 윤리/의식주 윤리/대중문화 윤리/갈등 해결/민족 통합 [문항 형식] 핵심쟁점/3단 논법/신문칼럼/X-Y-Z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죽음관 사상/직업관 사상/사랑 사상가/과학 기술과 윤리/예술과 윤리/다문화 모형/종교 윤리(엘리아데)/소통 윤리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 (지하)	윤리학 구분/동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서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국제관계론/평화론(갈통)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1등급이 되기 위한 필수!!

생운 문제 유형	6평 문제		평균정답률(%)	특이사항
	번호	배점(점)		
독해 주제	2, 7, 8, 20	10	85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3, 5, 12, 13, 16	11	76	통수 증가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 (지하)	1, 4, 10, 15	11	88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6, 9, 11, 14, 17, 18, 19	18	54	'난도 하락

[참고] 작년 6평(1컷 44)

생운 문제 유형	번호	배점(점)	평균정답률(%)	특이사항
독해 주제	11, 12, 18	7	85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2, 3, 5, 7, 9, 16, 20	15	77	꼭 통수가 있음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지하)	1, 4, 13	8	86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지상)	6, 8, 10, 14, 15, 17, 19	20	40	

[참고] 최근 6개년 수능 1~3등급컷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1컷	50	48	45	50	41	44
2컷	47	46	41	47	37	42
3컷	43	44	36	43	32	37

II. 문항별 간단 확인

※ 문제 출처 보는 법

- 26-6-3 : 26학년도(25년 시행) 6평 3번
- 25-10교-3 : 25학년도(25년 시행) 10월 교육청 3번
- 25 수특/수완: 25년 발간(26학년도) ebs 수능 특강/수능 완성

1. 생략은 아니고.....

6평 바로 직후에 현강에 합류한 친구가 있음. 일단 어떤 샘의 개념 강의 1바퀴는 돌린 상태임. (가)가 무슨 윤리학이니 물어보니 기술 윤리학이라고 함. 오케이. 맞음. 그러면 이게 왜 기술 윤리학이냐라고 물으면 제시문의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서 기술 윤리학이라고 함.

속으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한 번 더 물어봤음. 그러면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없애면 (가)가 기술 윤리학인지 모르냐라고 하니 이 친구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기술 윤리학이지 않느냐고 함. 두 번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다시 물음. 그러면 '객관적 관찰'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기술 윤리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니 답변을 못함.

Zola가 이 친구한테 "너는 문제 푸는 요령이나 tip, skill을 아는 거지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념 강의 1강이 공개되어 있으니 그 강의를 듣고 내 방식에 동의하면 다음 시간까지 1번 풀이를 내가 강의에서 한 듯이 풀어서 설명할 준비를 해와라. 만약 내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받고 안 오면 된다"고 함.

Zola가 이 작업을 하는 시점은 아직 이 친구의 다음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음. 이 친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음. 아래 오픈 강의 들어보시길.

이 문제는 메가스터디 예상 정답률이 90%가 넘음.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남들이 개념과 문제 풀이 tip을 구분하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음. 하지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비스들이 킬러 개념·사상가 가서 터짐. 윤리학 구분에서는 비스과 비(非)비스이 구분하지 않음. 그게 구분되는 것이 킬러임.

<https://class.orbi.kr/course/2675>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특별제공] 1강 OT+윤리학 구분

2. 혹시 틀렸으면 아래에 나온 샘들 중 아무 분 강의나 들어 보시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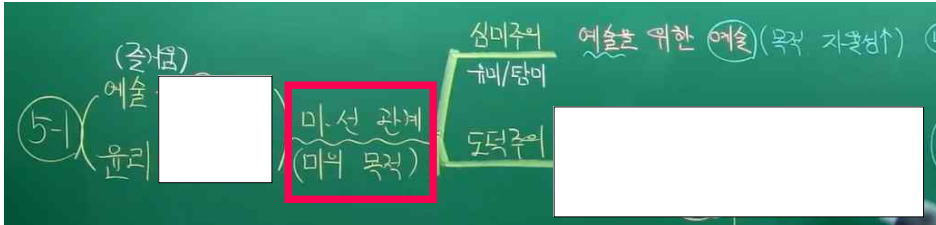
심찬우, 이근갑, 미친국어, 조은우, 김민재, 강민철, 김동욱, 전형태, 이원준, 박석준, 김상훈, 정담은, 최인호, 윤지영, 김승리, 유대종, 정석민, 김젼마, 홍지운, 윤혜정, 최서희

또는

Zola(바나나 제거 특강)

3. 도덕주의 심미주의 개념 알면 풀리는 문제임. 사상가는 필요없음.

(1) 제시문의 첫 문장으로 심미주의 판단 가능함. 판단 불가능하면님은 심미주의 개념이 없는 것임.

<p>6평 제시문</p>	<p>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p>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평가는 작품에서 받은 인상을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소재로 바꾸어 놓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반면, 교양인은 작품에서 아름다움만을 발견합니다.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p> </div> 
<p>Zola 강의 필기</p>	

그러면 일단 님들은 제시문 첫 줄을 읽고 심미주의로 판단 후 선지로 가면 됨.

선지에서 심미주의 개념형 선지가 있으면 고르면 되고, 만약 아리까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제시문 보면서 독해 시도를 하면 됨.

(2) 선지들을 보면 유사 문제가 평가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여러 번 나왔음. 틀린 분들은 교육청도 풀어보시길 바람. 어떤 분들이 교육청 오류 많다고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님들 교육청 오류를 세어 봤음? 몇 개 나왔고 몇 개부터가 '많음'임? 교육청이 오류가 있다고 한들 교육청은 3번 안 틀림. 3번 틀렸으면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교육청도 보시길 바람. 교육청 오류 지적하려면 코드원이나 현돌 수준은 되어야 가능함.

(3) 선지 ③ 오답률이 높음. 이 분들은 '미' 자체가 가치인 것을 모르는 분들임. 그런데 기출에서는 '미'가 가치임을 보여주는 선지들이 많음.

26-6-5임.

① 예술 활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23-6-8

ㄴ. 음악은 예의와 무관하게 심미적 가치만을 담아야 한다.

교육청에도 있다고 했지?

[21-4교-3]임.

④ 예술은 도덕적 가치보다 심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23-교-19]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것인가?

참고로 선지 ①과 정답이 되는 선지 ②가 거의 교육청 카피임.

[24-3교-16]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좋은 리듬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닮게 한다.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한다.

을: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는 윤리적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 ① 갑: 미를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선의 추구를 지양해야 한다.
- ② 갑: 예술가의 자유를 보장할수록 예술을 통해 선이 증진된다.
- ③ 을: 도덕적 삶은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을: 예술 활동에서의 도덕성 추구는 작품의 독창성을 저해한다.
- ⑤ 갑과 을: 예술은 작품을 통해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분명 평가원이 최우선이고 평가원만으로도 충분함. 그런데 평가원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Zola는 이런 입장임.

“평가원 ‘만’ 해도 된다. 그리고 평가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더 할거면** 교육청 ‘도’ 바라.”

4. Zola가 이걸 풀이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듯 함. 6월임에도 불구하고 메가 정답률 84%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음.

동양 사상은 개별 사상가보다는 사상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함.

동양 사상의 전반적인 기본 틀을 알고 싶으면 아래 공개되어 있는 강의 참고할 것.

<https://class.orbi.kr/course/2675>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  **[특별제공] 1강 OT+윤리학 구분**
-  **[특별제공] 2강 동양 윤리+자연관 (1) 전체 틀과 바나나 제거**

선지 ④를 잠깐 보자.

④ 을: **인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위자연의 도를 따라야 한다.

인륜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이 단어와 관련해서 Zola가 예사모[예사롭지 않은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해설을 달았음.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단어를 찾아봐!!

[올해 개정된 예사모 해설 중]

[25-수능-4] 도가(장자):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道)를 완성할 수 있다. XXX, 오답률(메가) 54%

→ 그런데 이 선지를 틀린 분들은 기출이 ‘덜’ 되어 있던 분들이다. 아래 기출을 보자.

[23-9-6] ② 유가: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륜적 삶에 충실해야 한다. O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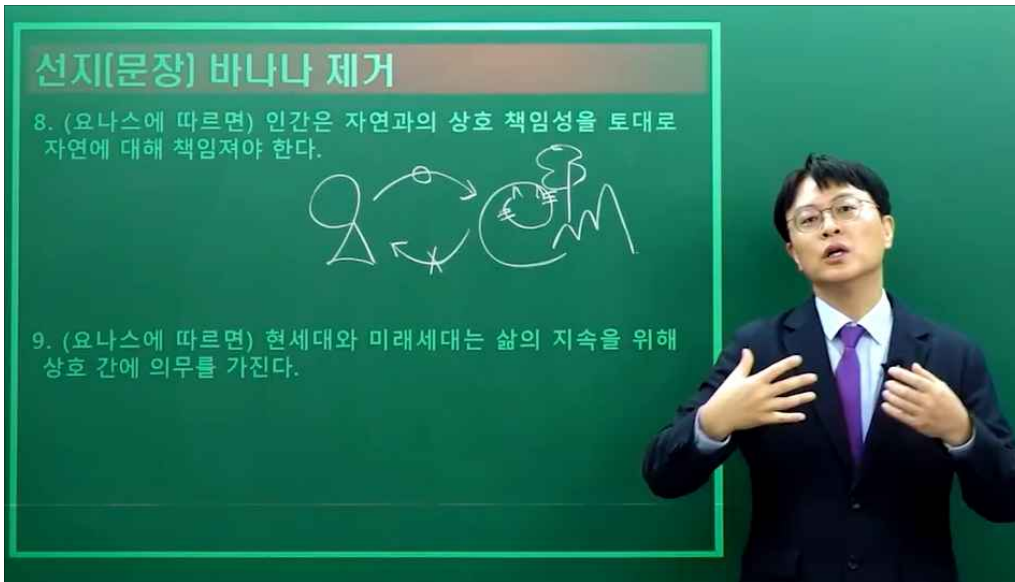
[24-수능-6] ⑤ 유가와 도가: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유가XXX, 도가OOO

→ 분명 ‘인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음. 저 기출 문제들을 넘들선배들은 어떻게 풀었길래 수능장에서 오답률이 50%가 넘어갈까????

5. 요나스의 책임 윤리임. 지식이 필요함. 수험생 입장에서 선지들이 낫설 수는 있음. 그러나 but

(1) 바나나 선지가 있음. 선지 ⑤.

⑤를 선택한 분들이 메가 기준 29%, ebs 기준 36%가 있는데, 이분들은 진심 바나나 제거 특강 들으시길 바람. 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됨. 사람처럼 살아야지....




수강하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바나나 제거 특강
바나나 제거 특강 <말장난 · 낫선 선지 · 독해 대비>

<https://class.orbi.kr/course/2586>

(2) 제시문 사상가가 ‘요나스’인 것을 모르면 공부 다시 할 것. 이걸 독해로 푸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림. 분명 독해로 답을 설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요나스 지식으로 바나나 선지 ⑤를 제외하고 가장 오답률 높은 선지 ③은 기출로 소거됨. 이걸 못 소거시켰으면 공부 다시 하시길 바람.

이번 6평 선지	기출 선지
③ 권력이 초래할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당위를 도출해 서는 안 된다.	[26-수능-12]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3) 이걸 독해로 푸는 법은 Zola가 유튜브 강의에서 6평 정리를 위한 강의 중에서 독해-추론 강의로 제작하였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길 바람.

https://www.youtube.com/@SAENGYOONZOLAKING http://bit.ly/3E0sg20	
--	--

6. 분배 정의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top 3에 들어갈 수 있음.

롤스 단독형, 노직 단독형 모두 출제된 적이 있으므로 조심할 것. 맨날 비교 대립 구도로 외우다가 털릴 경우 있음. 개별 사상가를 먼저 알고 대립 구도 잡으시길 바람.

일단 이 문제는 적당한 독해와 적당한 기출과 적당한 바나나로 구성된 문제임.

일단 답부터 봅시다.

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들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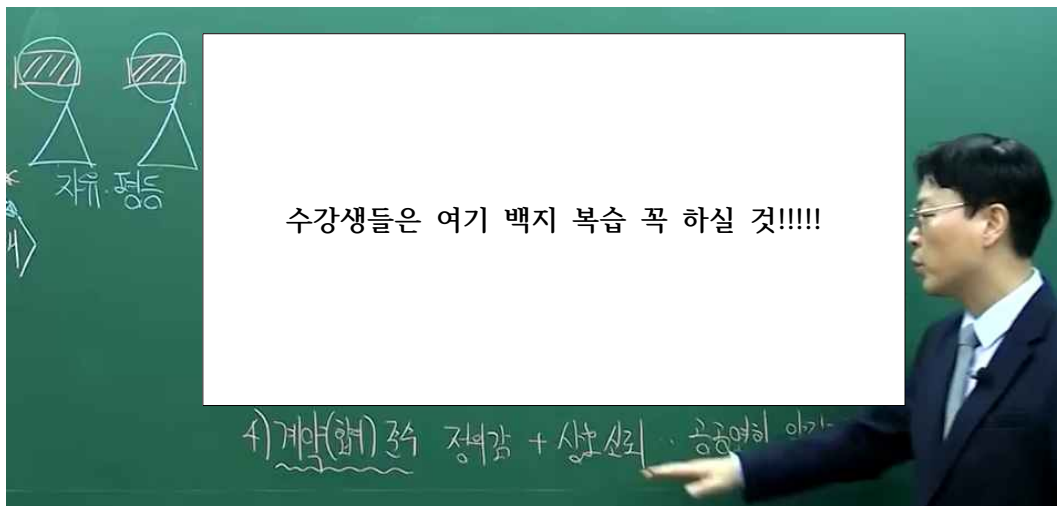
이건 합의·계약의 기본 전제이기도 함. 약간 바나나틱함.

강의에도 있고, 자료교재에도 있음.

자료교재 91쪽임.

(13) 철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들 간에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당사자들이 서로 믿고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인강 필기로는 롤스 암기 포인트 <2>에 해당함.



기출로 추론도 가능함.

기출[25-수능-15]	ㄴ.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추론	상호 신뢰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연결 가능할 것 같음???????

선지 ①과 ③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우선 선지 ①은 어느 정도 독해로 풀림.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가 누구든 재능이 어떻든 여러분은 저마다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각자 삶의 전망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타고난 재능, 지위 같은 우연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을 모두 함께 합의하는 가상의 절차를 생각해 봅시다. 합의된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재능 활용이 동료 시민 전체, 특히 가장 불리한 처지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합니다. 이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 존중과 박애를 실현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다양한 약기의 협주가 화음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의 다양한 재능들의 분포가 호혜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약속한 합의를 준수하는 정의감을 우리 모두 능히 행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없지????

①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삶의 목적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② 정의의 원칙은 가장 상황의 합의이므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는 없다.

선지 ③은 그냥 기출 그대로임. 이건 모든 강사가 교재들이 설명하고 있을 것임. 다시 말해 이걸 틀리면 개념이 구멍이 났든 기출이 구멍이 났든 뭔가 구멍이 제대로 났음. 이런 구멍을 만든 님들의 개념 공부 혹은 기출 공부에 대해 반성해야 함. 자신의 공부를 반성할 자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를 구분해주는 선지임.

③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는 없다. XXXXX

[22-수능-10]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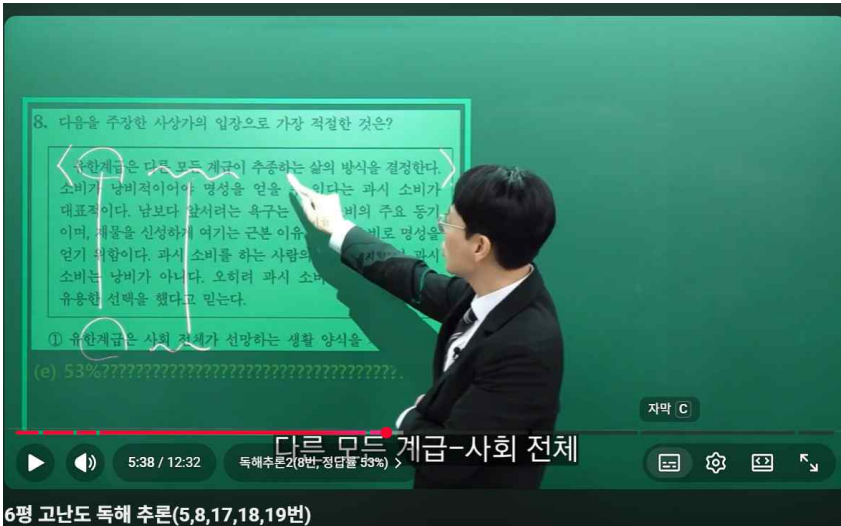
갑: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을: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23-수능-9]

7. 목민관이 뭐하는 것인지,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면 책을 펴서 확인할 것. 사상가가 누구인지 외울 필요없음. 나머지는 그냥 독해임. 목민관에 대한 선지 외우는 분들이 올해는 없기를 바람. 작년 10월에 김종익 샘의 모고를 보고 목민관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좀 쓴소리 했음. 10월달에 사설 모고 보고 목민관 선지를 암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거임. 틀리면 국어 선생을 찾아갈 것.

8. 정답률 보고 깜놀했음. 메가 64%, ebs 53%. 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유튜브에도 찍어 두었음. 설명 생략함. 유튜브 영상 확인해 볼 것.



<https://www.youtube.com/watch?v=GyWl7cxuSYk&t=309s>

9. 6평이어서 정답률이 50%가 되지 않을까 싶음. 수능이면 꽤 높은 정답률이 나올 것 같음. 제시문은 여러 번 나온 것들이라 제시문 보고 사상가 판단 못했으면 기출 부족이라 보면 됨. 자료교재에도 그대로 나오는 제시문임.

	갑	을
A	응	아니
B	응	내 알빠노
C	내 알빠노	응

순서도 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순서도 관련 질문은 사절함.

순서도 모르시는 분은 진심 권하는데 바나나 제거 특강 보길 바람.

이 문제도 적당한 기출과 적당한 바나나의 조합임.

	갑(루소)	을(베카리아)
ㄱ. A: 사회 계약에 근거해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응	응
ㄴ. B: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수 있는가?	아니	내 알빠노
ㄷ. C: 오직 공리를 기준으로 범죄의 경중을 측정해야 하는가?	내 알빠노	응
ㄹ. C: 정당하지 않은 형벌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 있는가?	내 알빠노	응

일단 바나나 선지가 ㄹ임.

수업 때 지각생 새끼 손가락 자르는 잔혹한 강사에 대해 얘기해줬음. 지각했다고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분명 정당하지 못함. 하지만 지각생을 줄이는 것에 분명 도움은 됨. 물론 지각생이 주는 것보다 학원을 그만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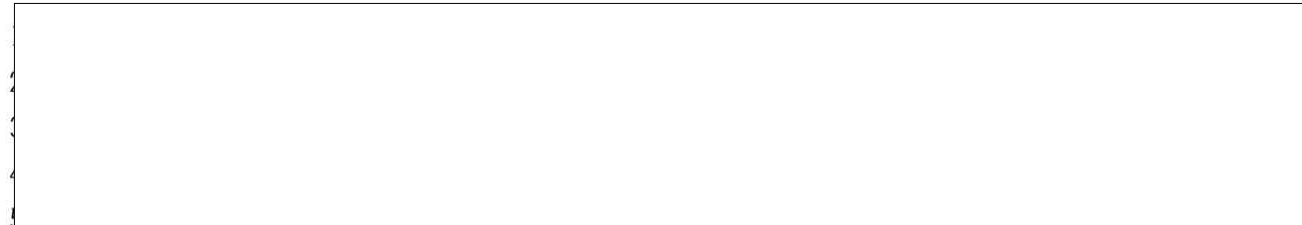
학생이 엄청 늘어서 그 학원은 망하겠지만. 여튼 바나나 선지임.
참고로 바나나 선지이기도 하지만 기출 선지이기도 함. 정오는 님들이 기출 직접 확인해 볼 것.
평가원이 기출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확인해 보자.

이번 선지	정당하지 않은 형벌도 범죄 억제력을 지닐 수 있는가?
	A B
[25-9-12]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B A

이 정도면 알아 듣지?
유사한 기출 선지들이 더 있음.
[19-수능-12] ④ 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22-6-19]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다음으로 ㄷ임. 공리주의 이용하면 쉽게 풀림. 자료교재에 내용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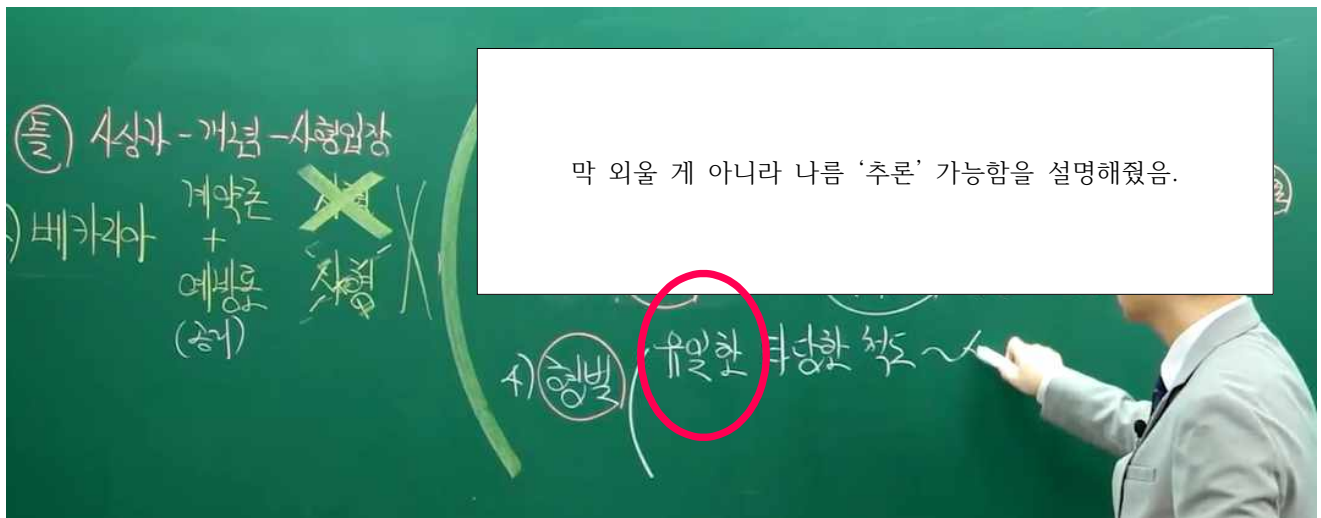
[Zola N회독]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 · 한인섭 공역, 길안사, 1995)



6) 범죄의 유일한 타당한(진정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이면서 계약론자이니까 ‘유일한’, ‘오직’이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들이대기도 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수업 때 말씀드렸음.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26강 교정 정의 (2) : 사상가 정리



ㄴ 선지도 관련 기출이 있음.

[23-수능-19] ㉓ C: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24-6-9] ㉔ B: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자료교재 114쪽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됨. 읽어보셈~

4. 한편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는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그는 조국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에 대해 전쟁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존립과 그의 존립이 양립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가 처형당할 때는 시민으로서라기보다 차라리 적으로 간주된다. 이 처벌의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깨뜨렸* 따라서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선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은 최소한 그의 거주지로 인해 국가의 구성원임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사회계약의 위반자로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적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며 이 경우 전쟁의 권리는 피정복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 이걸 설명하고 있으면 서로 서로 시간 낭비임. 그만큼 기본 중의 기본임. 분석서나 해설서를 보려면 그걸 보기 위한 기본이 갖추어져야 함. 그게 공부의 시작임.

10. 니부어가 나왔네. 올 수능에 나올까? 작년에는 페이크였는데...ㅏㅏ

선지도 일단 너무 쉬움. 지금 현 상태로는 독해로도 답이 도출됨.

지배 계급의 특권을 박탈하면 그들의 이익은 전체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것이다. 이때 이성이 특권층의 위세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즉,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강제력을 없애기보다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합리적·도덕적 요소에 맞게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로써 사회는 평등한 정의라는 가장 합리적인 궁극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시문: 이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제력도 병행함

선지 ㉓: 이성과 강제력 모두 필요.

더 설명 필요없지????????

- ① 인간 사회에서 특권은 박탈될 수도 약화될 수도 없다.
- ② 지배 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강제력은 모두 필요하다.
- ④ 불평등과 갈등이 소멸된 평등한 정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
- ⑤ 강제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정의 실현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니부어는 일단 준비해두자!

11. 시민 불복종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음. 독해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고, 대충 선지도 시민 불복종 기본 개념으로 어느 정도 풀림.

갑-롤스, 을-싱어

ㄱ. 갑: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한다.

→ 거짓.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함.

(1) 시불의 대상은 부정의한 법임.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을 어길 수도 있음.

[23-수능-14]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 000

(2) 롤스는 일부 부정의한 법이 시불 대상임. 일부라는 의미가 또 2가지로 해석됨. 우선 부정의한 법도 심각해야 시불함. 이걸 제시문에도 나눔. 즉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면 시불하지 않음. 다음으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에 대해 시불함. 차등 원칙에 어긋나는 법(자유와 기회 원칙에는 부합함)은 시불 대상이 아님.

아래 기출 확인.

[17-수능-8]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000

[19-9-19]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000

[20-수능-18]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000

[21-6-11]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XXX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기출 제시문이 있음.

[26-9-9]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 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p> <p>을: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p>
-----	---

ㄴ. 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

→ 참. 이걸 고민하지 말고 을이 싱어인지 알면 끝남. 싱어는 공리성임. 꼭 양심적일 필요는 없음.

싱어는 양심을 따르라고 한 소로의 생각도 아래처럼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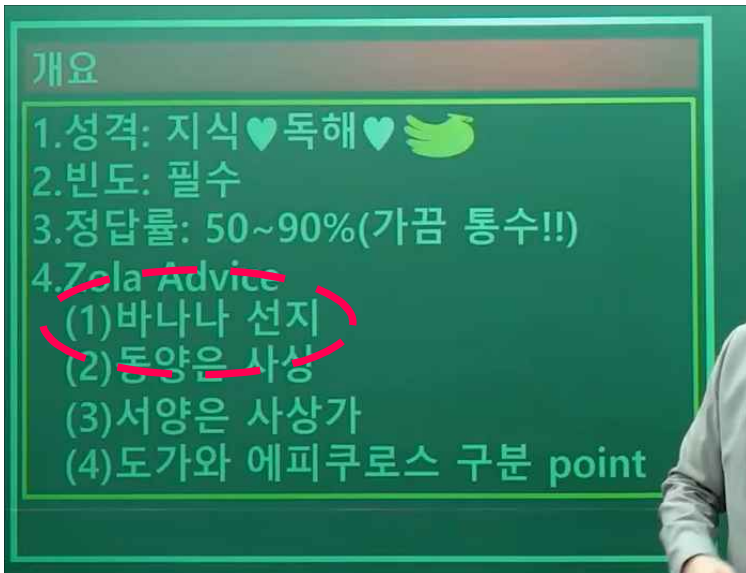
[싱어, "실천윤리학"] 추측건대 소로나 울프가 제안하고자 했던 '내면의 목소리'란 의미에서의 양심을 우리가 언제나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Zola 수강생은 이렇게 접근했다고 함. Zola에게 보내준 쪽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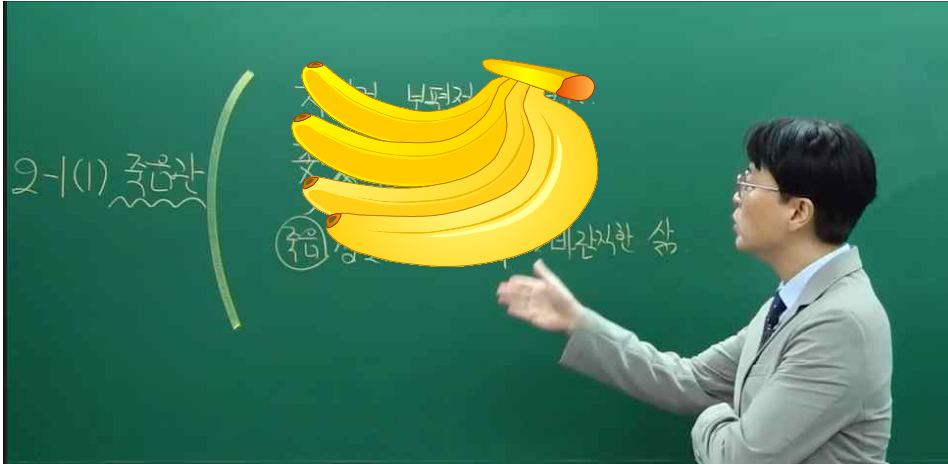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선생님!
 6평 19번 (해외원조) 한개 틀려서 47점입니다
 지금 그래도 시험장에서 헛갈렸던 선지를 분석중인데
 11번에 (시민불복종이요)
 L 선지 판단할때, 강의필기상 저항권 → 시민불복종 의미하면서 공양공의신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L 선지가 말하는건 단순히 시민불복종의 '의미' 를 말하는게 아니고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상어의 시민불복종의 근거인 '공리성'과 '양심'은 구분되어야한다고생각해서
 L 선지를 틀리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C 선지를 준호쌤강의에서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맞췄지만,
 L 선지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 ㄷ. 을 :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는 불복종할 수 없다.
 → 거짓. 위 쪽지에서서도 언급했듯이 수업에서 다루었는데, 이건 모든 강사, 교재가 다 다름.
- ㄹ. 갑과 을: 합법적 항거 수단이 있는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참. 합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과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임. 그러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음. 합법적 수단은 있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됨. 그러면 포기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불을 우리는 왜 배우는거지?????

12. 이거 틀리신 분은 진심 바나나 제거 특강을 듣길 바람. 정답되는 선지가 바나나 선지임.
 Zola는 여기에 분명히 바나나가 있다고 얘기했음.



그리고 당연히 수업에서 구체적인 바나나 사례들도 설명했음. 틀리신 분은 다시 강의를 보시길 바람.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님들이 알아듣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분명 여러 번 강조했음.



그런데 바나나는 바나나고
아래 두 기출을 비교해 보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람.

이번 6평	[25-수능-4]
<p>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도 없었고 기(氣)도 없었다.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생겼다. 또 그 삶이 변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계절의 운행과 같다.</p> <p>을: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만약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기(緣起)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p> </div> <p>① 갑: 죽음에 초연한 사람만이 기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갑: 죽음은 슬퍼해야 할 일이므로 예(禮)로써 애도해야 한다. ③ 을: 죽음을 통해서만 원인과 조건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④ 을: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도(道)를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갑: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氣)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p> <p>을: 늙음[老]과 병듦[病]과 죽음[死]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다.</p> </div> <p>① 갑: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② 갑: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道)를 완성할 수 있다. ③ 을: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業)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 ④ 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⑤ 갑과 을: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生死)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선지 ⑤가 서로 다른 2가지로 해석 가능함. → 해석 1. 생사의 얽매임을 불가-윤회, 도가-기의 순환으로 해석하면 ⑤는 오답임. 불가는 도를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도가는 도를 깨달아도 기의 순환에서 벗어나지는 못함. → 해석 2. 그런데 생사의 얽매임을 생사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하면 이걸 바나나 선지가 되어 버림. Zola는 수능 풀이할 때 두 번째로 해석하고 10초 컷했음. 평가원도 이 선지에 대해 표현상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지보다 명확한 표현이 왼쪽에 보이는 이번 6평 선지임.</p>

평가원에서 이 선지를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은 뭐겠니??
 내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음. 너네들 이제 20살인데....적어도 8~90살까지 살건데 너네들한테 죽음을 왜 가르치겠니? 잘 죽으라고? 잘 살라고? 답은? 잘 살라고!!!!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이 바나나임. 그리고 바나나를 생각보다 많음. 그래서 바나나 제거 특강이 있는 것임.

13. 정답률 81%임. 그런데 공부해야 함. 왜? 가끔(?) 종종(?) 통수 맞음. 엘리아데 문제 중에서 통수(?) 맞았던 문제들 정답률임.

기출(학년도)		정답률(ebsi)
수능	20	66%
	22	58%
6평, 9평	20-9	70%
	26-6	68%

정답에 도움되는 제시문을 보여줄테니 정답 선지랑 비교해 볼 것.

정답 선지	⑤ 한 사물에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기출 제시문	<p>[22-수능-17]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p> <p>[26-6-20] 종교의 역사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원시적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현현(顯現)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종교적 인간은 곧 그것이 돌 자체나 나무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p>

14. 바나나 선지 연습용으로 좋음.

(나)

<보기>

ㄱ. A: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ㄴ. B: 개별 생명체 중 의무의 주체는 모두 의무의 대상이다.
 ㄷ. B: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C: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지금 이 상태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음.

우선 ㄱ은 판단 불가능. 이걸 갑, 을이 무슨 입장인지 파악해야 알 수 있음.

그런데 ㄴ, ㄷ, ㄹ은 판단 가능함. 갑, 을이 무슨 입장인지 몰라도 판단 가능함.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바나나 제거 특강임.

중간 설명은 생략하고 선지 조합상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㉓뿐임.

지금 Zola의 풀이를 도저히 모르겠다. 감도 안온다 싶으면 바나나 제거 특강 진짜 진짜 진짜 들어라. 그런데 강의팔이 듣보 강사 얘기를 어떻게 믿냐. 바나나 제거 특강이 8,000원인데 이런 거금을 주고는 나는 못 듣겠다 싶으면 아래 유튜브 영상(무료) 있으니 그거라도 보길 바람.

<p>8,000원 쓰겠다!</p> <p>→</p> <p>→</p> <p>→</p> <p>→</p>	<p>Zola 생운 O <바나나 제거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제공] 1강 바나나의 정체+바나나 성향 테스트 ▶ 2강 바나나 제거 1 <선지 보는 법> ▶ 3강 바나나 제거 2 <과목의 특성 이용법(1)> ▶ 4강 바나나 제거 2 <과목의 특성 이용법(2)> ▶ 5강 바나나 제거 3 <제시문-선지 작성 원리(1)> ▶ 6강 바나나 제거 3 <제시문-선지 작성 원리(2)> ▶ 보강. 바나나+지식 ▶ 7강 바나나 제거 4 <시험장에서 갑자기 바나나가 올라올 때> <p>https://class.orbi.kr/course/2586</p>
<p>1원도 못쓰겠다!</p> <p>→</p> <p>→</p> <p>→</p> <p>→</p>	 <p>https://www.youtube.com/watch?v=rl8kcKle54s&t=455s</p>

참고로 Zola는 바나나 제거 특강에 진심임. 유튜브 상담글에 Zoia가 이렇게까지 댓글을 달기도 했음. 바나나 제거 특강 보길 바람.

일단 공부 자체가 시간 낭비하기 딱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하는 것 일단 멈추시고 저의 바나나 제거 특강이랑 망생성생이라는 공부법 특강 보시고 공부 방법부터 바꾸세요. 강의 듣고 실망하든가 괜히 들었다 싶으시면 제가 제 돈으로 환불시켜 드릴테니까, 일단 들어 보세요. 이제는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공부법이랑 생운 보는 관점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님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열공+즐공=대박!!!

혹시 제 개념 강의(생운 1) 수강생인데 이 문제를 틀렸다면...ㅏㅏ...아래 부분을 다시 한 번 듣고 백지 복습'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생운 2와 3에서는 제가 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치겠습니다ㅏ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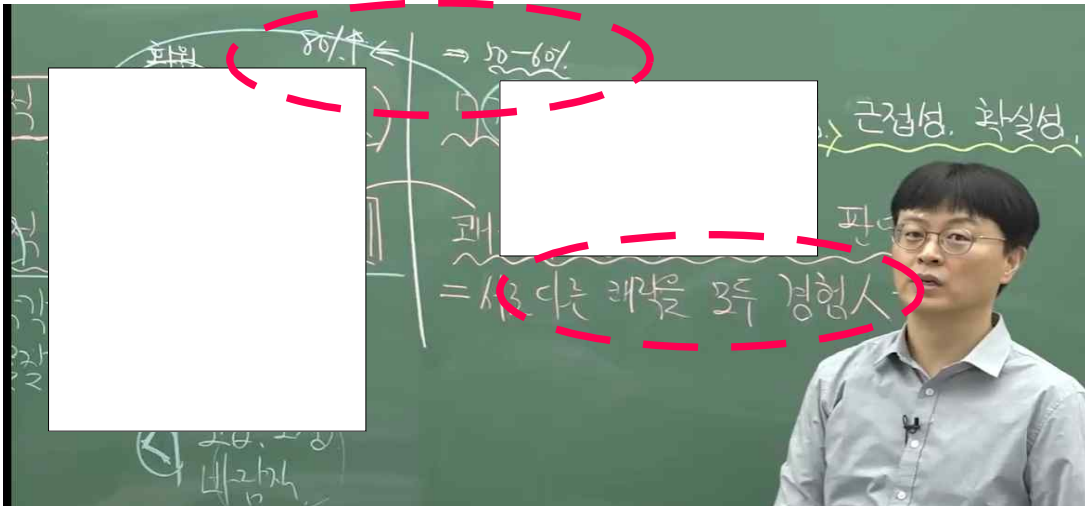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31강 환경 윤리(서양의 자연관) (1) 전체 틀과 바나나 제거

초반임. 바나나 수용소, 바나나 집합소, 어마무시한 바나나에 대해 얘기해 드렸음. 꼭 다시 보길 바람.



15. 1-3(1) 공리주의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음. 여기까지 물어보면 고3들 정답률이 80%인데 여기를 벗어나면 정답률이 60%이다. 왜 그러냐하면 고3들 암기가 짱다. 개네들은 길게 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내 강의 듣는 너네들이 내가 알려주는 길게 외우는 작업을 하면 너네가 결국 고3들을 쳐 바르고 고3들은 내년에 고4가 되어서 내 강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번 문제 ebs 정답률이 67%임....ㅋㅋㅋ



제시문 사상가가 밀인데, 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공리주의라는 것이 중요함. 선지 ③ 오답률이 가장 높음.

③ 쾌락의 질적 차이는 오직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밀이 '질적' 쾌락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답 아는 분?? 위의 필기 화면에 답이 있음. 서로 다른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그게 '나'일 수도 있지만 '남'일 수도 있음.

님들은 국어 만점의 지성적 쾌락과 수학 만점의 지성적 쾌락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님들 국어 만점과 수학 만점을 모두 경험해봤음?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니까 수학 혹은 국어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것임?

답은 선지 ②임.

②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세요.

일단 밀의 '질'은 고상함. 그리고 그것은 지적이고 도덕적 쾌락임. 그리고 이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 할 수 있음. 이러면 끝임.

16. 지식+독해+바나나가 버무려진 문제임. 겉보기에는 독해형임. 그리고 독해형 맞음.

다만, 제시문 읽으면서 사상가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묻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음. 그리고 선지 보면서 아 이건 바나나구나라고 생각했음ㅋㅋㅋ 정답은 바나나 선지임. 생운 사상가 중에서 현실 세계 인간의 오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가가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무릎 꿇고 배울게.

②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다.

출제 의도는 선지 ②를 독해로 풀라는 것인 것 같음.

○○ 신문 ○○○○년 ○○월 ○○일

칼럼

과거에는 광장이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면,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론장이란 시민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선호를 변화시키며, 공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의 공간이다. 이 공간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은 발언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한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는 과정에서 배우는 능력**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할 수 없다.

제시문: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는 과정

독해추론: 자신의 오류 가능성 확인

- ① 근거의 적절성이 확인된 주장만이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의사소통 합리성은 참여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다.
- ③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주제는 공적 담론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신념을 배제하고 발언해야 한다.
- ⑤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토의 과정에서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7. 정답률이 메가 62%, ebs 52%인데...음...사회 계약론인 거 파악하면 '추론'으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했음.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자연 상태의 자유를 내려놓고 소유 보전을 위해 사회 결성에 동의하는 계약뿐이다. 통치의 목적은 소유권 보전이며, 법의 목적은 자유 보장이다.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 성립된 국가에서 최대 해악은 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다. 반역은 법에 대한 위반이며, 권력자가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권력자는 권력을 과시하고 무력을 휘두르므로 유혹과 측근의 아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신약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을 파괴하는 권력자야말로 진짜 반역자이다.

④ 인민만이 권력자의 신약 위반을 심판하고 그를 파면하는 주체이다.

(e) 51%

그러면 서지 4번을 여러분이 왜

6평 고난도 독해 추론(5,8,17,18,19번)

<https://www.youtube.com/watch?v=GyWl7cxuSYk&t=338s>

오답률 높은 선지가 ①, ②번임.

- ①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한다.
- ②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일단 ①을 볼게요.

①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한다. XXX
이것은 사상가가 로크인지 알아야 함. 그러면 간단 기출 정도의 지식이 되어 버림.
작년에 올린 글임. 국어나 수학하기 바쁘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잠깐 짬을 내어서 눈팅해 보셈.

[Zola] 누가 로크 오개념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00976>

위 글에 인용된 기출입니다.
24학년도 9평 생운입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묶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보 기>—

- ㄱ.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 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 ㄷ.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다음으로 ②를 보겠습니다.

②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XXX
이 선지는 기출임.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음. 제시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됨.
[23-수능-12]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처벌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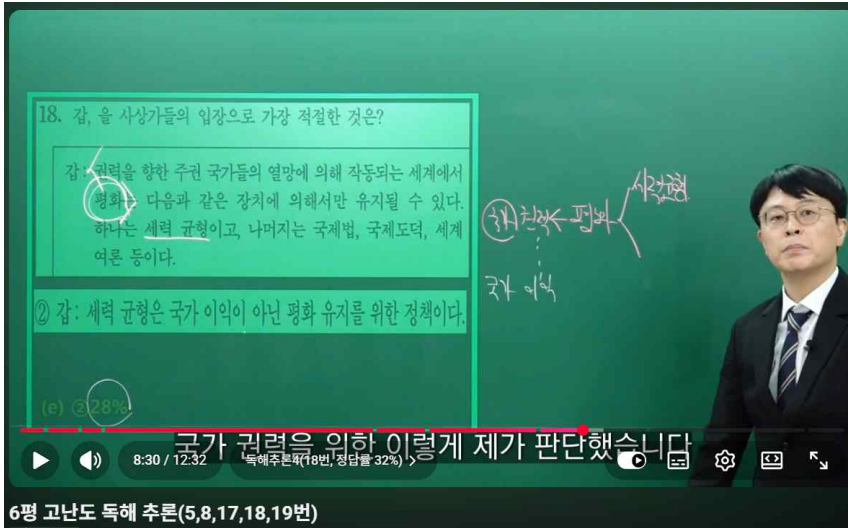
을: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보 기>—

- ㄱ. 갑: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재판관이 된다.
- ㄴ. 갑: 정부에 신탁된 권력은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 ㄷ. 을: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 ㄹ. 갑과 을: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18. 이 문제 틀릴 수는 있음. 그런데 선지 ② 오답률이 메가 21%, EBS 28%여서 영상을 찍었음. 이 선지는 어느 정도 독해 추론이 가능함. 제발 이런 것 틀리지 마!!
 갑이 현실주의(모건소), 을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임.
 선지 ②는 아래 영상 참고하면 됨.

② 갑: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이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Wl7cxuSYk&t=338s>

선지 ③, ④, ⑤를 차례대로 보겠음.

③ 을: 국제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화 연맹으로 귀속된다.

→ 이건 님들이 개념이 서로 같든가 기출이 서로 같든가 둘 중 하나는 서로이라는 얘기임.

Zola는 분명히 <공부법 특강-망생성생>에서 개념과 기출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개념 끝낼 때 기출 2회독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공부법까지 제시하였음.

개념	
기출	<p>[21-9-20] 나.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XXX</p> <p>[22-9-13] ②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XXX</p> <p>[24-수능-16] ⑤ 갑과 을: 국제 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000</p> <p>[25-수능-19] ③ 전쟁 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XXX</p>

이 정도 보여줬으면 더 할 말 없지!!!

④ 을: 국가들 간 자연 상태는 평화 연맹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 참. 아래 기출 제시문 볼 것. 그런데 이걸 최소한 님들이 자연 상태가 평화 상태가 아닌 전쟁 상태이다라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함.

[26-9-16]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을: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 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

갑-모건소
을-칸트의 영구 평화론

⑤ 갑과 을: 국제법의 적용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독해로 됨. 아래 제시문 보면 알겠지만 국제법이 아닌 세력 균형으로 평화 가능하다고 나옴. 그러면 이 선지는 당연 갑이 틀려서 을을 생각할 필요도 없음. 글을 읽은 후에 판단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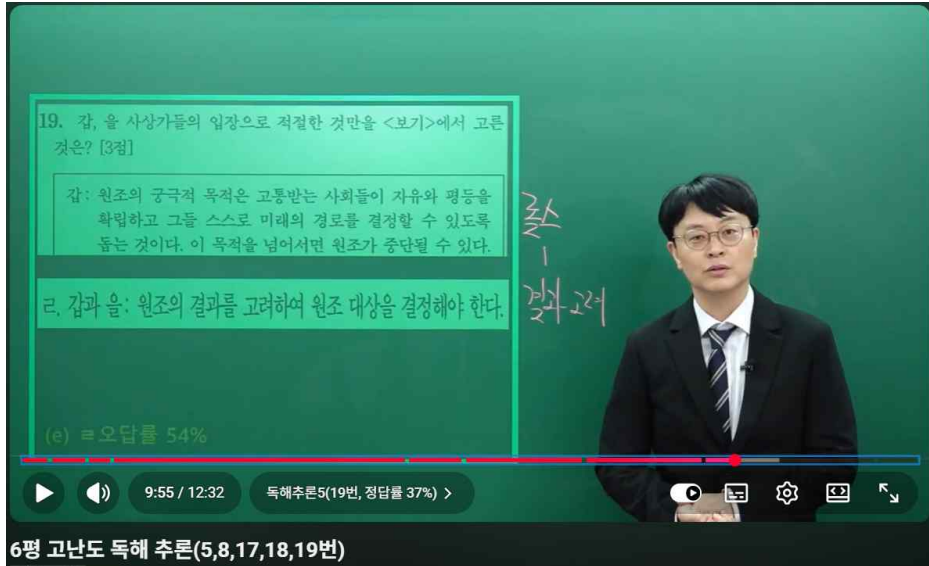
갑: 권력을 향한 주권 국가들의 열망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에서 평화는 다음과 같은 장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나는 세력 균형이고, 나머지는 국제법, 국제도덕, 세계 여론 등이다.

평화 유지 장치가 2개임.
(1) 세력 균형
(2) 국제법.....

19. ㄹ 판단이 제일 많이 틀렸음.

ㄹ. **갑과 을: 원조의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갑-롤스, 을-싱어. 결과 고려는 싱어만 되고 롤스는 안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된 판단 근거임. 그러면 Zola가 물어봄. 싱어가 결과 고려인 것은 맞다. 그런데 롤스가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 특히 이 선지는 독해 추론으로 가능하기에 영상으로 찍어 두었으니 판단 틀리신 분은 참고하시면 됨.



<https://www.youtube.com/watch?v=GyWl7cxuSYk&t=338s>

참고로 영상에 소개된 그리고 평가원이 활용한 제시문이 Zola의 자료 교재에 있어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음. 읽어 보고, 평가원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해서 선지로 각색했는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 것.

[자료교재, 239쪽]

(9)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이 달성되면,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 ... 생략...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선지 중에서 ㄱ과 ㄴ을 확인해 봅시다.

ㄱ. 갑: 원조 주체인 사회가 모두 질서 정연한 사회인 것은 아니다.

→ 거짓. 롤스는 원조 주체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봄. 이걸 단순 지식.

ㄴ. 갑 : 원조 대상은 오직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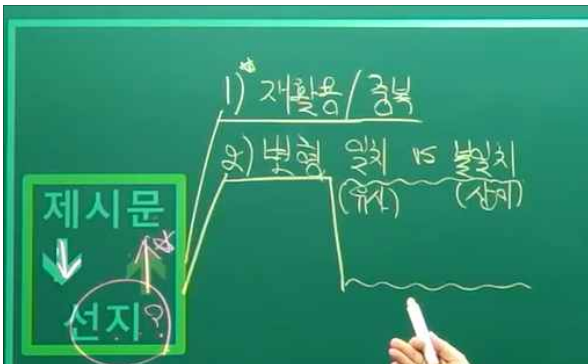
→ 거짓. 원조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인데, 애네들은 뭔가 정치 제도나 문화, 덕목이 인권 존중과는 거리가 먼 애들임.

→ 이번 문제와 이전 기출을 비교해 보셈. 그대로 보여드리겠음.

이번 6평	[25-9-19]
<p>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p> <p>갑: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 그들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넘어서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p> <p>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갑: 원조 주체인 사회가 모두 질서 정연한 사회인 것은 아니다.</p> <p>ㄴ. 갑: 원조 대상은 오직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뿐이다.</p> <p>ㄷ. 을: 원조 주체와 대상의 행복을 모두 증진하는 원조는 가능하다.</p> <p>ㄹ. 갑과 을: 원조의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p>	<p>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p>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p> <p>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p> <p>ㄴ.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p> <p>ㄷ.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p> <p>ㄹ.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p>

긍정이 부정되고 부정이 긍정됨. 이걸 선지 작성 원리의 기본이기도 함.

5강 바나나 제거 3 <제시문-선지 작성 원리(1)>



20.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Zola의 바나나 제거 특강의 독해 파트를 듣고 꾸준하게 연습하실 것을 추천함. 모든 생운 현장·인강 중에서 유일하게 독해력을 다루는 강의임.

III.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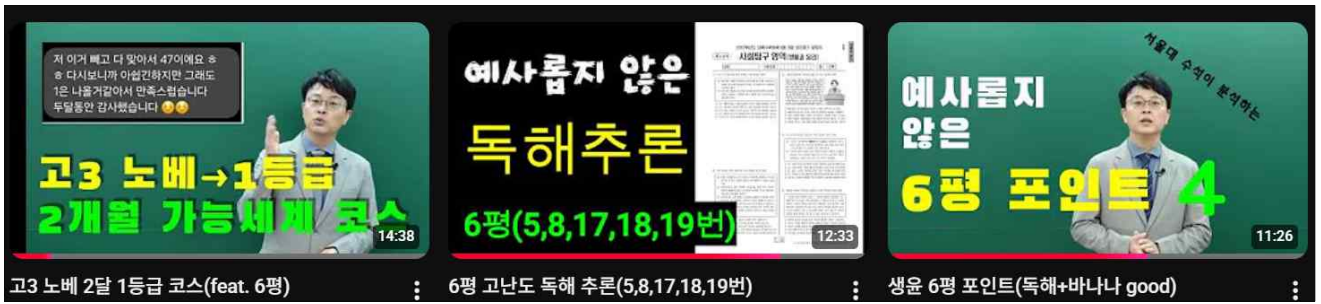
[참고] 메가스터디 정답률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1	2	3	4	5
1	4	95%	2%	1%	1%	95%	1%
2	1	87%	87%	2%	1%	1%	9%
3	2	76%	4%	76%	13%	1%	5%
4	1	84%	84%	1%	2%	12%	1%
5	1	56%	56%	1%	12%	2%	29%
6	5	78%	9%	3%	7%	3%	78%
7	3	93%	1%	2%	93%	2%	2%
8	1	64%	64%	14%	5%	5%	11%
9	5	48%	13%	19%	5%	15%	48%
10	3	94%	1%	1%	94%	3%	1%
11	4	69%	17%	4%	6%	69%	4%
12	5	74%	11%	5%	6%	5%	74%
13	5	81%	3%	3%	4%	9%	81%
14	3	42%	18%	12%	42%	17%	11%
15	2	79%	3%	79%	8%	6%	4%
16	2	93%	2%	93%	2%	3%	1%
17	4	62%	11%	11%	9%	62%	8%
18	4	45%	7%	21%	11%	45%	16%
19	5	47%	3%	29%	16%	5%	47%
20	4	95%	1%	1%	2%	95%	1%

[참고] ebsi 오답률 15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5	2	18	①	82	2.3	1.5	1.5	12.7
12	3	30.3	②	4.3	69.7	17.2	1.7	7.1
14	4	25.6	①	74.4	1.3	2.6	20.6	1.1
5	5	54.1	①	45.9	2.2	13.3	2.3	36.2
11	6	30.6	⑤	10.7	3.7	11.9	4.4	69.4
7	8	47.4	①	52.6	15.7	6	6.9	18.7
2	9	68.1	⑤	18.8	27	6.8	15.6	31.9
8	11	40.9	④	22.9	5.5	8	59.1	4.5
9	12	39.4	⑤	16.9	6	9.4	7.2	60.6
13	13	28.5	⑤	5.4	3.9	6.8	12.4	71.5
1	14	74.6	③	28.3	14	25.4	20.7	11.6
10	15	32.5	②	4.5	67.5	11.5	9.4	7.1
6	17	48.4	④	12.9	12.4	10.4	51.6	12.7
3	18	68.1	④	7	28.3	13.9	31.9	18.8
4	19	62.5	⑤	4.3	32.6	17	8.7	37.5

유티: 생윤은 김준호
6평 정리용 영상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

<http://bit.ly/3E0sg20>